

탈북여성 재현에서의 ‘경계 넘기’

—강영숙의 『리나』, 정도상의 『찔레꽃』을 중심으로

‘Crossing borders’ of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황희정(단국대 박사과정)

차 례

- | | |
|----------------------|---------------------|
| 1. 서론 | 2) 안개의 경계 넘기: 『찔레꽃』 |
| 2. 소설 속 탈북여성의 ‘경계’ | 3. 결론 |
| 1) (신)발의 경계 넘기: 『리나』 | |

1. 서론

몇 해 전만 해도 생소했던 ‘탈북자’¹⁾ 또는 다문화가정 등에 대해 다루고 있는 문화예술은 점차 늘어나고 있고, 그들의 등장은 이제 독자와 관객의 입장에서도 낯설거나 충격적이지 않을 만큼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문학과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 뮤지컬 등의 장르로 진출하며 다양한 콘텐츠로 탈북 디아스포라가 제작되었던 것에 반해 대

1) 통일부는 2004년 9월부터 ‘탈북자’라는 용어를 친근하게 바꾸는 작업을 해온 결과 2005년부터 ‘탈북자’를 ‘새터민’으로 대체 선정하였다. ‘새터민’은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의 순 우리말이다. 정부는 공식적인 법률적 용어로는 ‘북한이탈주민’이지만, 비공식적인 상황에서는 ‘탈북자’를 대신하여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상황에 맞게 사용하면서 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는 논의의 성격에 맞춰 ‘탈북자’, ‘탈북여성’으로 용어를 통일하고자 한다. (김경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에서 적응경험』,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12, 4쪽 참조)

부분 우리가 흔히 인지하고 있는 보편적이고 단조로운 내용이나 인물로 그려졌기 때문에 대중(또는 독자)의 지속적인 관심을 끌기 어려웠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탈북 디아스포라는 다양한 모습으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문학의 경우 탈북 디아스포라는 소설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반영되었으며, 200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장편소설²⁾들이 출판됨에 따라 관련 연구 또한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고인환은 정철훈의 탈북 디아스포라 소설에서 『인간의 악보』를 중심으로 작중 한주민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소설적으로 조명해 본 적 없는 새로운 이념적 디아스포라 양상을 목도하게 된다는 점을 중요한 의미와 가치로 꼽으며, 박제된 체제와 민족의 이데올로기를 넘어 선 한 자유로운 영혼의 삶을 통해 세계시민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점에서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으로 평했다.³⁾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웅준의 『국가의 사생활』과 강희진의 『유령』에 나타난 탈북 디아스포라 문학의 새로운 양상을 고찰하며, 텍스트의 서사 구조를 표면적 층위와 심층적 층위로 나누어 분석하고, 두 작품을 탈분단 지향의 텍스트로 명하였다.⁴⁾

이성희는 박덕규의 『고양이 살리기』를 통해 새로운 체제에서 온 탈북자의 시선을 투사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적 평가를 내리며, 나아가 탈북자 문학이 분단문학을 넘어 진실보한 통일문학으

2) 탈북 디아스포라를 다루고 있는 2000년 이후 소설은 김정현, 『길 없는 사람들』 1~3, 문이당, 2003; 김남일, 『중급 베트남어 회화』, 『실천문학』 2004년 여름호; 박덕규, 『고양이 살리기』, 청동거울, 2004; 전성태, 『강을 건너는 사람들』, 『문학수첩』 2005년 가을호; 김영하, 『빛의 제국』, 문학동네, 2006; 문순태, 『울타리』, 『울타리』, 이룸, 2006; 정철훈, 『인간의 악보』, 민음사, 2006; 강영숙, 『리나』, 랜덤하우스중앙, 2006; 황석영, 『바리테기』, 창비, 2007; 권리, 『원손잡이 미스터 리』, 문학수첩, 2007; 김원일, 『오마니벌』, 강, 2008; 정도상, 『썰레꽃』, 창비, 2008; 이대환, 『큰돈과 큰돈들』, 실천문학사, 2008; 이호철, 『이매, 길을 묻다』, 아이엘엔피, 2008; 리지명, 『삶은 어디에』, 아이엘엔피, 2008; 이웅준, 『국가의 사생활』, 민음사, 2009; 조해진, 『로기원을 만났다』, 창비, 2011; 강희진, 『유령』, 은행나무, 2011, 등이 있다.

3) 고인환,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의 한 양상-정철훈의 『인간의 악보』를 중심으로』, 『비평문학』 제37집, 한국비평문학회, 2010.

4) 고인환, 『탈북 디아스포라 문학의 새로운 양상 연구-이웅준의 『국가의 사생활』과 강희진의 『유령』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제39집, 한민족문화학회, 2012.

로 확산되어야 할 것을 주장했다.⁵⁾

홍용희는 정도상의 『쫄레꽃』과 이대환의 『큰돈과 콘돔』을 분석하여 “흔들리는 분단체제의 징후이며 통일 시대의 진조”인 탈북자 문제를 소설을 통해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⁶⁾ 김효석은 이호림의 『이때, 길을 묻다』, 권리의 『왼손잡이 미스터리』, 황석영의 『바리데기』, 강영숙의 『리나』, 정도상의 『쫄레꽃』, 이대환의 『큰돈과 콘돔』을 기본 텍스트로 하여 탈북자와 분단 현실에 대한 작가의 대응방식을 다양한 방향으로 고찰하였다.⁷⁾

탈북 디아스포라 소설 중 가장 연구가 활발히 된 소설은 황석영의 『바리데기』이다. 다수의 연구에서 예술성과 주제의식의 측면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 중 하나로 『바리데기』를 선정하고 논하고 있으며, 문화콘텐츠, 민족, 다문화 사회 등 다양한 주제와 결합시켜 디아스포라 소설로서의 가치가 연구되었다.⁸⁾

최근 탈북 디아스포라 소설은 ‘탈북여성’을 중심으로 서사를 전개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탈북여성’의 재현에서는 최근의 탈북 현황과도 밀접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⁹⁾

다문화가정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우리의 문화 속에도 속속 다문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이 탄생하게 된 것처럼 탈북자, 그 중에서도 탈북여성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배제할 수 없게 된 새로운 일원으

5) 이성희, 「탈북자 소설에 드러난 한국자본주의의 문제점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51집, 한국문학회, 2009.

6) 홍용희, 「통일시대를 향한 탈북자 문제의 소설적 인식 연구」, 『한국언어문화』 제40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9.

7) 김효석, 「『경제』의 보편성과 특수성」, 『다문화콘텐츠연구』 통권 7호,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09.

8) 송태현, 「탈북을 주제로 한 문화콘텐츠 연구」, 『세계문학비교연구』 제28집, 2009; 김인수, 「황석영의 『바리데기』에 나타난 민족 문제」, 『한국학연구』 제41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박정근, 「디아스포라로 인한 다문화 사회의 바리데기적 비전」, 『한민족문화연구』, 한민족문화학회, 2009.

9) 통일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199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 10월 현재 25,000여 명에 이른다. 이 통계에서 주목할 부분은 여성의 비율인데, 전체 통계에서 70%에 육박하며, 2012년의 경우는 이미 70%를 넘어서 80%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로 탄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의 반영으로 현재 방영중인 드라마들에서도 ‘탈북자’ 캐릭터들이 등장한다.¹⁰⁾ 이렇게 탈북 디아스포라와 관련된 다양한 작품이 창작되면서 그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¹¹⁾ 남성을 포함한 인물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는 일반적인 특성의 분석은 가능하나, ‘여성’에 대한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고는 2000년대 이후 소설에서의 탈북여성 재현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분석 대상은 정도상의 『쫓레꽃』과 강영숙의 『리나』이며, 대상 텍스트를 통하여 탈북여성의 ‘경계넘기’를 어떠한 방식으로 재현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2. 소설 속 탈북여성의 ‘경계’

기존의 한국문학에서 여성들의 이동과 유목은 타락이나 추방을 의미했기 때문에 집과 고향을 떠나 이상적 공동체를 찾아가는 모험은 허락되지 않았다.¹²⁾ 그러나 탈북 디아스포라의 여성 인물들은 국경이라는 ‘경계’를 넘는 순간부터 모험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도 북한을 탈출한 여성 대부분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러시아 같은 제3국을 경유하여 한국에 입국하게 되는데 이들은 평균적으로 약 2년 이상 중국이나 제3국에 체류하게 된다. 특히 중국을 경유할 경

10) 2012년 12월 현재, KBS일일연속극 <힘내요, 미스터 김!>의 리철용 역, SBS 주말드라마 <내 사랑 나비부인>의 리국희 역 등이 탈북자로 등장한다.

11) 최근의 탈북 디아스포라 소설 연구에서 ‘여성’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며, 대표적 연구로는 김은하, 「탈북여성 디아스포라 재현의 성별 정치학」, 『한국문학논총』 제55집, 한국문학회, 2010; 김윤정, 「디아스포라 여성의 타자적 정체성 연구」, 『세계한국어문학』, 세계한국어문학회, 2010. 등으로 볼 수 있다.

12) 김은하, 「탈북여성 디아스포라 재현의 성별 정치학-『쫓레꽃』, 『바리테기』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55집, 한국문학회, 2010, 370~371쪽.

우 현지인 또는 조선족과의 강제결혼, 인신매매, 성매매, 매춘, 성폭력 등의 위험에도 크게 노출되어 있다.

또한 탈북여성들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 초국가적 공간에서의 삶을 경험하는 특성이 있다. 대부분 북한에서 중국으로 국경을 넘게 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불법적인 행위이다. 그러다보니 그녀들은 낯선 곳에서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일상적인 어려움이 있고 배우자와의 원치 않는 이별과 새로운 만남을 반복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¹³⁾

탈북 디아스포라 소설 속의 여성은 '경계'를 너머 이주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사적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관계들은 그녀들의 정체성마저 바꿔놓는 중요한 사건들이지만, 다양하고 빠르게 지나가며, 그 안에서 '경계'는 다양한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다.

1) (신)발의 경계 넘기: 『리나』

국경을 넘기 전의 리나는 탄광 지역 노동자인 부모 밑에서 학교가 끝나면 유소년 직업 훈련센터에 나가 밤새 단순 기계 부품 조립을 하던 열여섯 여자아이이며,¹⁴⁾ 부모님, 남동생 그리고 리나로 이루어진 네 식구는 P국으로 가기위해 국경을 넘는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리나는 P국에 가지 못한다. 가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리나』에서 P국은 남한으로 유추되는 상징적인 국가이다. P국뿐만 아니라 그녀가 머물거나 지나가는 모든 곳들의 실재를 유추나 상상이 가능하다.¹⁵⁾

강영숙의 『리나』는 P국으로 가기 위해 국경을 넘고 그 과정에서 리나

13) 이화진, 「탈북여성의 이주경험을 통한 정체성 변화과정 -북한, 중국, 한국에서의 이성 관계를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제21권 제3호, 2011, 178쪽.

14) 강영숙, 『리나』, 랜덤하우스중앙, 2006, 9~10쪽 참조.

15) 오창은은 『리나』의 구체적 지명 등의 생략되고 전개되는 서사는 "분단을 전유한 여성 소설"로 나아가며 바로 이 부분에서 "분단을 전유한 여성소설"로서 『리나』의 가치가 빛난다고 말하고 있다. 오창은, 「분단 디아스포라와 민족문학」, 『모욕당한 자들의 사유』, 실천문학사, 2011, 238쪽.

와 주변인물들이 겪는 이야기가 전개된다. 『리나』는 P국, 국경, 제3국 등의 구체적인 지명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내용의 전개를 통하여 ‘탈북’과 ‘탈북의 과정’을 그리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리나의 여정에서 P국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는 실제 P국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은 이후 리나의 내부에서의 변화이다. 이러한 P국의 이미지 변화와 경계는 그녀의 (신)발에 대한 욕망으로 작품 전반에서 드러나고 있다.

달랑 두 켤레의 신발은 이미 오래전에 더 이상 신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지만, 지금 이 순간 친구들이 신고 있던 신발이 차례로 눈앞으로 지나갔다. ‘미리 말해줬다면 바닥이 두툼하고 가벼워보이는 그 흰색 운동화를 훔쳤을 텐데.’ 리나는 무릎을 치며 아쉬워했다.¹⁶⁾

작품의 도입부에서 국경이라는 첫 번째 경계를 스물 두 명의 일행과 함께 넘은 리나는 이미 망가진 자신의 신발을 보며 탈출 전 운동화를 훔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집을 떠나기로 한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지 않았”(14쪽)던 아버지를 원망한다. 이후 “발가락이 땅속으로 처박힐 듯 쏘리고 발목이 저려”(14쪽)오는 탈출의 여정 내내 리나의 (신)발에 대한 집착에 가까운 욕망은 계속된다.

스물두 명의 탈출자는 화려한 조명의 거대한 도시에서 두 번째 인솔자를 만난다. 일행 모두가 “기차를 뜯어 먹을”(26쪽) 정도로 배가 고프는 상황이지만, 리나의 발걸음은 신발 노점상으로 향한다.

리나는 신발 노점상 앞으로 다가가 굵이 높고 흰 털이 달린 부츠를 만져봤다. 흰 털의 감촉이 부드러워 저절로 탄성이 나왔다. 흰털을 만지고 있는 손톱

16) 강영숙, 앞의 책, 14쪽.

에는 누런 흙이 박혀 있고 손등은 나무껍질처럼 거칠었다.¹⁷⁾

리나는 자신이 신은 망가진 진흙투성이의 운동화와 대비되는 “굽이 높고 흰 털이 달린 부츠”를 만지며 P국을 상상한다.

‘내가 가서 살게 될 P국은 이 나라보다 더 잘산다고 했어. 나도 저 여자들처럼 청바지와 구두를 신겠지. 정말 대학에도 갈 수 있을까. 배가 터지게 먹기는 할 거야.’¹⁸⁾

P국으로 향하는 여정의 초반으로 볼 수 있는 작품의 도입부의 리나는 목적지는 정확하게 ‘P국’을 향하고 있다. 국경을 넘어 처음 만진 흰 털이 달린 부츠는 리나의 ‘P국’에 대한 이미지와 다름없다. 흰털을 만지는 리나는 나와 가족들을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들을 “안전한 투망에 넣어”(11쪽) 국경 너머 P국으로 마술처럼 데려다 줄 것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신훈인 여자와 관리직 출신의 여자, 할아버지와 함께 리나는 탈출의 여정에서 낙오하게 되고, 화공약품공장으로 끌려가게 된다. 폭력 속에서 노동을 하던 리나는 네모반듯한 얼굴의 공장 관리자에게 성폭행을 당한다. 이 과정에서 리나는 “자신이 신고 있던 운동화를 오래도록 내려다”(62쪽)보며 산속에서 헤매던 시간과 가족들을 그리워한다.

결국 리나는 네모반듯한 얼굴의 남자와 그녀들이 성폭행 당한 사실을 알고 있던 할아버지를 드럼통에 넣어 죽이고, 그곳에서 만난 남자에 ‘빠’와 함께 공장을 탈출한다. 망가질 때로 망가진 리나의 운동화 한 짝은 절단이 났다. 검은 초원을 지나 남쪽으로 걷는 리나 앞에 펼쳐질 다음 여정들은 그녀의 (신)발을 통해 계속해서 짐작케 된다.

17) 위의 책, 26쪽.

18) 위의 책, 26쪽.

(…) 도대체 이 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리나는 몸을 숙여 흙을 만져 보았다. 굵은 소금을 닮은 모래들은 햇빛에 익어 갈색이었다. 눈을 어디로 돌려도,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도 누런 풀이 우거진 평야 아래에 단호하게 직선으로 뻗어 있는 이 길을 피할 수는 없었다. 리나는 이 길을 소금밭이라고 불렀다. 수분 없이 말라 돌출된 땅바닥은 잔뜩 날이 선 칼날처럼 딱딱했다. 몇 발 짝 걷지 않아 나머지 운동화 한 짝의 밑창이 다 터져버려서 결국 맨발이 되었다. 터진 운동화를 끝으로 연결해 어깨에 매고 깨끔발을 한 채 걸어갔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꼭 채증만큼의 통증이 발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찌르고 올라왔다. 처음엔 비명을 질렀지만 나중엔 비명도 안 나오고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오히려 머리끝이 시원해졌다. 스물두 명이 시작한 기나긴 탈출 과정은 모두 잊혀지고, 지금 발아래에 있는 소금밭의 통증만이 고스란히 남았다. 소금밭의 통증은 날것인 채로 살아 그 후로도 오랫동안 리나의 혈관 속에서 툭툭 튀어올랐다.¹⁹⁾

리나는 “흰 꽃잎들이 흩날”리는 커다란 “흰색 교회”에서 “흰 벽”에 기대 앉아 있는 아버지, 엄마, 남동생과 재회한다. 그러나 리나는 “그들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흰 꽃잎들로 시선을 돌려버”(85쪽)리고 빼와 교회를 빠져나온다. 리나는 점점 P국에 대한 환상이 부서지자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며, 앓기도 한다.²⁰⁾ 그런 리나가 다시 만난 가족에게 돌아가지 않고 거리로 나와 마주한 것은 바로 신발이다.

리나는 빼의 손을 잡고 노점이 늘어선 거리로 나왔다. 길거리에서는 싱싱한 열대 과일을 높이 쌓아놓고 팔았고 관광객들이 건물 앞에 놓인 파라솔 밑에 앉아 여유롭게 책을 읽고 있었다. 신발 전체에 분홍색 구슬과 반짝이가 박히고 앞코가 뾰족해 발이 날렵해 보이는 좌판 위의 예쁜 슬리퍼가 눈에 들어왔다.

19) 위의 책, 73쪽.

20) 위의 책, 83쪽.

리나는 뜨거운 햇볕 아래서 알팍한 면으로 만든 치마를 입고 분홍색 슬리퍼를 끌고 어딘가로 걸어가는 장면을 상상했다. 리나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운동화가 아닌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었다. 리나가 P국에 가서 제일 먼저, 그리고 마음껏 사보고 싶은 게 있다면 바로 신발이었다.²¹⁾ (...) 리나는 다른 손님들과 떠드는 사이 슬리퍼를 훑쳐 달아날까 말까 망설였다. 그러면서도 왜 빠가 보이진 않나 자꾸 뒤를 돌아봤다. 리나는 결국 슬리퍼를 훑치지 못했고 슬리퍼는 해가 질 때쯤 팔렸다.²²⁾

리나는 흰 털 부츠 이후 다시 내 것이 아닌 신발 앞에서 “뜨거운 햇볕 아래서 알팍한 면으로 만든 치마를 입”고 걷는 자신을 상상한다. 결국 그녀는 “예쁜 슬리퍼”를 훑칠 수도 있었지만 훑치지 않는다. 그녀가 “제일 먼저, 그리고 마음껏” 신발을 사야할 곳은 바로 P국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동하는 과정에서 국경을 넘을 때 신었던 망가지고 진흙덩어리가 묻은 운동화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시령을 떠나기위해 짐을 꾸릴 때도 헤어진 뼈를 생각할 때도 리나는 운동화를 끌어안고 있다. 그런 리나가 국경을 넘은 이후 첫번째로 갖게 되는 신발은 “검은색 가죽에 붉은 꽃을 단 납작한 고무신 같은 신발”(174쪽)이다.

“너 이거 사고 싶었지.” 그때 봉제공장 언니가 리나의 눈앞에 검은색 신발을 내밀었다. “언니, 애가 왔네.” 리나가 신발은 쳐다보지도 않고 빠가 왔다는 사실을 먼저 알리자 언니는 입술을 삐죽거렸다. “말 안 해도 알아. 넌 참 잘도 찾아온다. 너희들은 도대체 형제도 아닌 것들이.” 리나는 그제야 정신들여 언니의 팔짱을 끼고 옆으로 데려갔다.²³⁾

21) 위의 책, 86쪽.

22) 위의 책, 87쪽.

23) 위의 책, 175쪽.

봉제공장 언니가 몸을 팔아 번 돈으로 선물한 검은색 신발은 헤어졌던 뻘과 함께 리나의 품에 들어온다. 리나가 국경을 넘어 처음으로 갖게 된 신발은 그녀가 원했던 굽이 있는 보드라운 흰털의 부츠도, 앞코가 뾰족한 알록달록한 슬리퍼도 아닌 납작한 검은색 고무신이다. 이 검은색 신발을 가진 리나는 다시 국경으로 이동하며, P국에 대한 이미지 또한 변형된다. “난 꼭 P국으로 가고 싶지도 않아. 그냥 아무 데서나 살아도 돼. 왜 우리를 또 추방시키는 거야.”(178쪽)

국경으로 가는 기차에서 스물두 명의 탈출자들이 환상으로 등장한다. 그들은 모두 앞을 주시하고 있으나, 오로지 열여섯 살의 리나만이 또 다른 리나인 만삭의 리나를 찌려보고 있다. 또한 리나는 탈출 여정에서 재회한 가족들이 ‘하얀 교회’에서 ‘흰 꽃잎’이 날리던 ‘흰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을 때처럼 ‘흰 눈발’이 날리는 기차 안에서 처음으로 국경을 넘기 이전을 떠올린다.²⁴⁾

그렇게 검은색 신발이 데려다 준 곳은 자신이 처음 국경을 넘던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의 대규모 플랜트 공장지대이다. 그녀는 이곳에서 다시 살인을 하고, 뻘과 할머니를 비롯한 모든 주변인을 잃게 된다. ‘흰 운동복’을 입은 채 다시 공장지대를 떠난 리나가 다시 걸음은 멈춘 곳은 다시 신발 앞이다. “분홍색 구슬이 달린 슬리퍼 모양의 촌스러운 신발”(312쪽)이다.

구슬이 달린 슬리퍼 모양의 촌스러운 신발을 지금 당장 갖고 싶었다. 탈출하는 주제에 신고 나섰다가는 한 시간도 안 되어 작살이 나버릴 조악한 수제품이었다. 그러나 리나는 탈출이 끝나 늙고 또 고요해졌을 때 지금의 저 좌판 위에 있는 촌스러운 신발을 발에 꿰고 그곳의 바람과 공기를 느끼고 싶었다. 그래서 발에 맞지 않아도 상관없고 튼튼하지 않아도 상관없었다.²⁵⁾

24) 위의 책, 184~185쪽.

25) 위의 책, 312쪽.

어느새 흠비가 그쳤다. 신발을 파는 남자가 다시 쥘쥘하게 좌판을 깔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시장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리나는 처음 보는 물건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다시 좌판으로 갔다. 그리고 분홍색 구슬이 달린 촌스러운 슬리퍼를 얼굴 가까이 끌어안았다. 리나는 생각했다. '지금까지 난 얼마나 걸었지. 내 허벅지는 그걸 알까?' 갑자기 뒷전에서 울리는 당겨진 피스톨 소리를 들었다. 국경을 향해 걷고 있던 스물두 명의 타닥거리는 발소리 틈으로 총소리가 울렸다. "이봐요, 그거 자꾸 만지지만 말고 하나 사지." 리나는 얼굴이 검은 좌판 주인 남자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²⁶⁾

지금까지 갖고 싶었던 신발들을 만져보기만 했던 리나는 처음으로 신발 한 짝을 신어본다. P국으로 가서 청바지에 구두를 신고 싶어했던 리나는 이제 촌스럽고 발에 맞지 않고 튼튼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한다. 그녀는 이제 탈출의 여정에서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나 '검은' 얼굴의 좌판 주인 남자 앞에서 '흰 운동복'을 입은 리나는 여전히 경계에 선 이방인이다.

그날 밤 리나의 꿈에는 촌스러운 신발과 뼈가 등장한다. 그녀의 신발에 불을 붙인 뼈는 신발과 함께 타 사라졌다. 잠에서 깨어난 리나에게 이제 새 신발에 대한 욕망이 사라지고 없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리나의 손끝에 담겨 있어야 할 것 같던 구슬이 달린 슬리퍼는 보이지 않았다. 리나는 머리가 아프고 온몸이 떨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리나는 얼굴을 팔에 묻은 채 소리내지 않고 울었다. 뼈의 몸에서 나는 쇠내를 맡으며 편안하게 잠들고 싶었다. 구슬이 달린 예쁜 슬리퍼를 가질 수 없다는 것과 뼈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되뇌는 순간, 리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²⁷⁾

26) 위의 책, 314쪽.

27) 위의 책, 316쪽.

리나는 다시 국경을 향해 떠난다.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고는 앞으로 걸어”(343쪽)가 국경에 도착한 그녀는 “운동화 끈을 풀고 신발을 벗은 채”(346쪽) 알몸으로 초원을 걸었고 검고 큰 새 한 마리와 만난다.

리나는 한참을 가다가 뒤를 돌아보았다. 평원 위에 일렬로 서서 국경을 향해 걸어오고 있는 스물두 명의 탈출자들이 보였다. 세 가족과 봉제공장 노동자들 모두 무사히 살아 있었다. 숲에서 죽은 꼬맹이도 살아 있었고 봉제공장 언니도 화학공장에서 죽은 할아버지도 아직 모두 살아 있었다. 게다가 봉제공장 언니의 꼬맹이와 남편인 아랍 남자까지 끼여 있어서 대열을 더 길어졌다. 리나는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보였다.²⁸⁾

다시 일행들이 생긴 리나는 “운동화 끈을 단단히” 매고 국경으로 향해 떠난다. “하늘이 열리듯 저절로 열릴”(11쪽) 것이라고 믿었던 “푸른 독처럼 펼쳐진”(11쪽) 국경은 여전히 “저만치 앞 허공”(348쪽)으로 존재한다.

신발은 1차적으로 ‘발’의 보호를 의미한다. ‘발’은 우리가 떠나기위해 싸야하는 가장 중요한 신체의 일부이다. 리나에게 신발은 그녀를 ‘보호’해줄 ‘P국’이며, ‘P국’은 탈출의 최종 목적이기도 하다.

기나긴 탈출의 여정동안 리나의 내부에서 ‘P국’의 이미지는 계속해서 변화하며, 이러한 변화에서 그녀는 자신의 목적을 열망하고 갈등하다가 잃어버리기도 한다. 경계는 단지 국경만이 아니라, ‘신발’을 통해 자기 자신의 내면의 경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리나가 마음의 경계를 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새’ 신발이다. 리나는 경계너머를 욕망하지만 끝내 ‘신발’을 훔치지도 스스로 사지도 못하고 다시 경계에 서는 행동으로 내면의 경계를 허물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28) 위의 책, 347쪽.

2) 안개의 경계 넘기: 『절레꽃』

탈북자 이야기를 담은 소설들은 그 경계선을 넘나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벌이는 과정을 재현한다. 소설 속에 재현된 탈북의 경로를 크게 집단 월경, 납치에 의한 월경, 개인적인 월경²⁹⁾으로 나누고 있는데, 대부분 탈북 '브로커'가 존재한다.

정도상의 『절레꽃』은 7개의 단편이 연속적인 하나의 '탈북과 정착'의 거대한 서사로 묶인 연작소설이다. 특히 납치에 의한 월경, 특히 여성을 주인공으로 탈북의 경로를 재현한다.

「겨울, 압록강」에서 '2005 국제고구려학회'가 열린 작년 초가을 만났던 아낙을 찾기 위해 집안(集安)을 가기로 한 화자는 단골 안마사 미나(美娜)와 동행한다. 탈북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아낙을 찾던 화자는 결국 처음의 목표했던 아낙찾기에는 실패하지만, 그 여정의 끝에 조선족으로 알고 있던 미나에게서 탈북자라는 고백을 듣게 된다. 출장안마를 지불하고 미나를 불러내어 함흥에서 살던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미나를 더이상 기만하고 싶지 않았”기에 아무것도 묻지 않기로 한다.

『절레꽃』에서 미나는 충심-미나(메이나)-소소-은미로 바뀌어간다. 「함흥·2001·안개」에서는 미나의 탈북이전의 삶, 충심으로 돌아간다. 소녀인 충심은 함흥이 알아주는 천재로 불리며 김일성종합대학에 들어간 충성 대신에 매섭게 찢어진 눈초리에 왈패질과 주먹질로 유명한 재춘과 사랑에 빠진다.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남양에 갔던 충심은 조선족 인신매매단에게 속아 중국으로 팔려가고, 이를 막으려던 재춘은 국경 경비원의 총에 맞아 사망한다. 자의이던 타의이던 경계를 넘게 된 충심은 그 경계에서 죽음과 폭력을 경험하며 '충심'으로의 삶을 마감하고, 수난의 여정을 이어가게 된다.

29) 오윤호, 「탈북 디아스포라의 타자정체성과 자본주의적 생태의 비극성 - 2000년대 탈북 소재 소설 연구」, 『문학과 환경』 10권 1호, 문학과 환경학회, 2011, 240쪽 참조.

잠깐 소설 밖 현실로 나와 이야기를 하자면, 실제로 2000년대 이후 탈북여성의 비율을 남성의 9배이며, 제3국을 통해 탈북한 여성들의 70~80% 이상이 인신매매를 경험한다. 탈북자 특히 탈북여성들이 생존을 위한 극한상황 속에서 발생한 인권상실과 그 바탕에 깔린 성적문제는 그녀들의 내면 깊숙이 트라우마를 지니게 한다.³⁰⁾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볼 때, 『쫄레꽃』은 탈북 문제의 재현이상을 그리는 데는 실패했다. 그러나 작품에서 ‘함흥’, 더 나아가서 ‘북한’이라는 공간을 상징하고 있는 ‘안개’는 국경을 포함한 다양한 ‘경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겨울 압록강, 강물에서는 물안개가 끊임없이 피어올랐다.

영화 삼십도의 허공으로 올라와 자욱하게 퍼진 물안개는 즉시 얼어 안개눈이 되어 펄펄 쏟아져내렸다. 강가에 줄지어 선 느티나무 가지마다 눈꽃이 하얗게 피어 있었다. 바람이 불면 하얀 느티나무가 미친듯이 가지를 흔들며 춤을 추었다. 압록강은 안개눈 속에서 조용히 흘렀다.³¹⁾

중국에서 만난 아낙과 미나의 이야기로 꾸려질 압록강 너머는 ‘나’에게 “자유롭게 드나든 것이 믿어지지 않”는 안개로 덮여진 상상속의 공간이다.³²⁾ 압록강 너머라는 공간은 안개를 통하여 ‘거리두기’를 확보하게 된다. ‘나’는 아낙의 이야기가 중심의 모습과 뒤섞인 채 안개 속 너머의 공간을 상상하러 한다.

30) “국내로 입국한 탈북자의 상당수는 입국 전 짧게는 12개월 이하, 길게는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중국, 대만 등 제3국에서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지낸다. 이 과정에서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인권유린, 감금, 폭행, 강제노동, 성폭력, 인신매매, 매춘 등의 처우를 받음으로 정신적, 신체적 압박감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 중에서도 탈북여성의 다수를 차지하는 80% 내외의 2~30대 탈북여성들에서 제3국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는 증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최현실, 「탈북여성들의 트라우마와 한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여성학연구』 제21권 1호, 2011. 2, 162~195쪽 참조.

31) 정도상, 『쫄레꽃』, 창비, 2008, 22쪽.

32) 위의 책, 18쪽.

고구려 시절, 강을 사이에 두고 두 마을이 있었으리라. 마을사람들은 서로 왕래하며 연애하고 혹은 연애에 실패하며, 상처받고 상처주며, 노동과 음식을 나누고, 어린것을 결혼시켜 자손을 낳으며 살았을 터였다. 저 강은 국경이 아니라 함께 빨래를 하고, 고기를 잡고, 눈에 물을 대는 공동의 재산이었으리라. 강 건너편의 농부 총각과 고구려왕이 살았던 국내성의 어느 고관집 하녀인 언청이 처녀가 만나 결혼을 했고, 앞니 빠진 총각은 남편이 되고 언청이는 아내가 되어 어/여쁜 딸을 키우며 행복하게 웃었을 풍경이 기록영화의 낡은 필름처럼 머릿속에서 차르륵차르륵 소리를 내며 떠올랐다.³³⁾

‘나’는 아낙을, 정확하게는 탈북여성을 찾기 위해 떠난 여정에서 위와 같은 상상을 한다. ‘나’는 아낙을 찾기 위해 떠돌면서 이름도 성도 모르는 것을 절망스러워하고, 자신을 탓하기도 하지만, 이 아낙에 엄청난 그리움이 결국 죽은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나’는 아들의 부재를 “첫남자가 밍지 않다던” 아낙에게서 위로받고 싶어 내가 사는 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집안까지 찾아왔으나 결국 그녀를 찾지 못한다. 그러나 이 여정의 끝에서 만나게 된 미나가 탈북자라는 고백을 듣고, “푹푹한” 기억 속의 아낙과 미나와의 성매매 사이에서 ‘나’의 가슴은 “더러운 유리창”이 되어 흔들린다. ‘나’는 “미나를 더이상 기만하고 싶지 않”아 흔들리는 더러운 마음을 정지시킨다.³⁴⁾

‘나’에게 결국 안개 속 너머는 한낱 꿈이자 위로받기 위한 환상의 공간임을 고백한다. 이렇듯 ‘나’는 아들의 부재에서의 도피와 이로 인한 삶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안개 너머를 꿈꾸고 찾아다니는 것이다. 그렇게 ‘나’는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아낙과 미나의 안개 너머를 상상한다. 그로 하여금 그녀들을 현재 ‘나’의 위태로운 현실과 동일시하여 위로 받고 있다.

33) 위의 책, 24~25쪽.

34) 위의 책, 26~27쪽.

안개는 「겨울, 압록강」에서는 탈북자인 미나와 아낙의 이야기를, 「함흥·2001·안개」에서는 탈북 이전의 북한에서의 충심의 일상생활을, 소설 속 ‘나’와 소설 밖의 독자에게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한다.

안개는 도시의 아침을 완벽하게 점령하고 있었다.

안개 속에서 사람들은 속수무책이었다. 바다에서 항구도시로 올라온 지독한 해무(海霧)였다. 언제나 같은 자리에 완고하게 서 있던 거무튀튀한 건물과 늪고 삭아버린 아빠트가 안개바다 위에서 섬처럼 떠있었다. 안개 속에서는 사람도 작은 섬처럼 느껴졌다.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안개가 더 멀리 벌리고 있었다. 바람이 불면 첩첩하던 안개가 한쪽으로 몰려갔고, 먼바다에 외롭게 떠 있는 섬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이 자꾸 흔들렸다. 환시이고 착각이었을까.³⁵⁾

미나의 과거인 충심의 이야기로 돌아간 화자는 안개 속에서 북한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북한과 그 경계 밖의 거리는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안개로 덮여져 있다. 여기에서 보이는 북한의 모습은 우리가 아는 그 이하 혹은 이상도 아니다. 사람들이 있고 그 안에 사랑도 있지만, 그것마저 가로막는 것은 뻔하게도 북한의 ‘가난’이다.

충심은 고중 시절 갑자기 사라진 동무들의 얼굴을 떠올려보았다. 셋이던가 넷이던가? 고중 사학년 때 사라진 만순이와 그 동생 만복이, 작년여름 이후로 학교에 나오지 않아 끝내 함께 졸업하지 못한 길자, 그리고 소문 속에서 떠돌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가슴 깊은 곳에서 떠올랐다가 스러졌다. 고난의 행군을 함께하지 않은 배신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던 그 이름들, 보위부에서 나와 집뒤풀이를 하면서도 쌀 한톨 나오지 않는 살림살이에 허만 끌끌 차고 돌아

35) 위의 책, 30쪽.

왔다는 소문들, 그리고 미국, 미국은 왜 우리를 이다지도 못살게 하는 것일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충심은 그만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³⁶⁾

안개 너머로 상징되고 있는 북한에서 충심과 주변인들의 삶은 '가난'이라는 현실마저도 아름답게 그리고 있다. 그러나 환상은 이후 안개라는 경계를 뚫고 나감과 동시에 모두 파괴된다. 함흥에서의 충심과 재춘의 사랑은 정신적인 사랑 혹은 더 아름다운 사랑으로 그려지고 있지만, '가난'으로 인해 충심이 고향을 떠난 여정에서부터 '성'에 대한 언급이 나타난다. 함흥으로 대변되는 고향이라는 공간은 더 깊은 안개에 덮여 있는 환상의 공간 혹은 화자의 머릿속의 지독히 순결한 공간으로 대변된다. 이와 대비되는 공간은 국경, 바로 안개 너머이다. 충심의 삶은 안개의 경계를 넘게 되면서 파괴된다.

한참을 걸어가니 두만강이 바로 내다보이는 길이 안개 속에서 불쑥 나타났다. 몸을 최대한 낮추고 강변으로 조심스레 내려갔다. 물결의 흐름이 빠른 여울목이 나타났다. 여울목에는 초소가 있어 조금 더 올라가야 한다면 남자가 뒤를 밀었다. 밤안개가 몸을 숨겨주자 조선족 아낙네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다는 작은 전화기였다.

“여보시요. 밤안개가 아주 뚫다. 지금 물건 개꾸 간다. 준비하라우.”³⁷⁾

충심은 탈향의 과정에서 조선족 인신매매단에게 속아 안개 너머로 내몰아진다. 안개의 경계는 충심의 사랑을 살해하고, 정체성으로 대변될 수 있는 이름마저 바꾸어 놓음으로써 '충심'의 삶도 죽음을 맞이한다.

승합차는 도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밤안개를 헤치며 느릿하게 달려갔다. 두

36) 위의 책, 48쪽.

37) 위의 책, 67~68쪽.

만강에서 스멀스멀 올라온 밤안개는 국경지대를 흐릿하게 감싸며 더욱 짙어지고 있었다.³⁸⁾

경계를 넘은 충심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잃고 ‘물건’이 되어 팔려가는 ‘미나’의 삶이 시작된다.

『절레꽃』은 탈북자인 충심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겨울, 압록강」은 나의 이야기이지만, 오히려 작가의 머리말에 가깝다.³⁹⁾

“강을 건너가면, 무엇이 있단 말인지?”(108쪽) ‘나’에게 강 건너는 안개로 가려져 있는 공간이었으나 경계를 넘어온 후에도 안개는 가득하다. 안개로 가려진 공간은 더 정확하게 ‘안개’ 자체이기 때문에 안개는 경계에 서 있는 충심이 지나가고 바라보는 시야 속 어디에서나 존재한다.

돈을 벌어 함흥으로 돌아가 돼지밥을 얻으러 다니던 어머니를 모시고 보란듯이 살거라는 꿈을 포기하지 않을 것(112쪽)이라던 스물 하나의 충심은 우여곡절 끝에 남한으로 오게 된다. 그러나 스물일곱의 충심은 여전히 브로커들에게 협박을 당하고 노래방 도우미로 성을 팔고 있으며, 돈을 벌기 위해 조선족과 가짜 결혼을 해야 할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첩첩하던 안개”라는 내면의 경계는 여전히 충심의 “가슴에 차곡차곡 쌓”(111쪽)여 있다.

38) 위의 책, 70쪽.

39) “선양에서 두만강을 건너온 처녀를 우연히 만난 후, 스스로 금기로 여겼던 유랑의 이야기를 쓰지 않을 수 없었다. 남북 민간교류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쓸 수 없었던 이야기였다. 하지만 다른 작가들은 이 문제에 관심이 많지 않았고, 더이상 미룰 수가 없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국경을 넘어 중국에서 유랑하는 사람들을 ‘탈북자’로 만들어 한국으로 ‘기획입국’시키며 영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뻔뻔스럽게도 ‘북한인권’ 운운하는 것을 보면서 절망했고 그 때문에 이 작업이 긴급하다고 느꼈다.” 위의 책, 「작가의 말」, 241~242쪽.

3. 결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형성에서 '냉전'은, 제외하고 설명할 수 없는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이다. 이러한 한반도의 냉전상태는 분단국가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형태를 갖게 하였으며, '탈북 디아스포라'라는 장르 또한 탄생시키며, 다양한 인물들이 재현되었다.

본고에서는 강영숙의 『리나』와 정도상의 『찔레꽃』의 여성인물을 통해 탈북여성 재현에서의 '경계 넘기'를 살펴보았다. 『리나』에서는 여성인물의 '경계 넘기'에서 '(신)발'을, 『찔레꽃』에서는 '안개'라는 상징을 통해 인물과 경계를 재현해내고 있다.

『찔레꽃』은 '나'라는 화자를 통하여 그에 대한 우리들의 의식 또한 중요시하며, 보다 냉정하게 접근하려 했으나 수없이 재현되었던 '여성'과 그에 대한 연민이 짙게 깔려있다. 『리나』에서는 이제는 진부해진 소재가 된 탈북 여정과 경계의 현실에 대한 직접적인 재현만을 그리지 않고, 문학적 상상력을 극대화시켰다.

앞으로도 탈북 디아스포라의 여성인물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재현될 것이며,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탈북여성의 현실'도 당분간 계속 나타날 것이다. 탈북 디아스포라 소설 속 여성인물의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위에서 다룬 두 편의 작품이외에도 다수의 총체적 작품 분석이 요구되기 때문에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2000년대 이후 소설의 탈북 디아스포라 여성인물의 총체적 분석 및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영숙, 『리나』, 랜덤하우스중앙, 2006.

정도상, 『썰레꽃』, 창비, 2008.

고인환,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의 한 양상-정철훈의 『인간의 악보』를 중심으로」, 『비평문학』 제37집, 한국비평문학회, 2010.

_____, 「탈북 디아스포라 문학의 새로운 양상 연구-이웅준의 『국가의 사생활』과 강희진의 『유령』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제39집, 한민족문화학회, 2012.

김경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에서 적응경험」,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12.

김은하, 「탈북여성 디아스포라 재현의 성별 정치학」, 『한국문학논총』 제55집, 한국문학회, 2010.

김효석, 「'경계'의 보편성과 특수성」, 『다문화콘텐츠연구』 통권 7호,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09.

오윤호, 「탈북 디아스포라의 타자정체성과 자본주의적 생태의 비극성-2000년대 탈북 소재 소설 연구」, 《문학과 환경》 10권 1호, 문학과 환경학회, 2011.

오창은, 「분단 디아스포라와 민족문학」, 『모욕당한 자들의 사유』, 실천문학사, 2011.

이성희, 「탈북자 소설에 드러난 한국자본주의의 문제점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51집, 한국문학회, 2009.

이화진, 「탈북여성의 이주경험을 통한 정체성 변화과정-북한, 중국, 한국에서의 이성 관계를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제21권 제3호, 2011.

최현실, 「탈북여성들의 트라우마와 한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여성학연구』 제21권 1호, 2011. 2.

홍용희, 「통일시대를 향한 탈북자 문제의 소설적 인식 연구」, 『한국언어문화』 제40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9.

Abstract

‘Crossing borders’ of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Focusing on 『JJIL-RE-KKOT』 by Jung Dosang and 『RI-NA』 by Kang Yeongsook

Hwang, Hee jung

‘The Cold War’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keywords in forming Korea. The Cold War made two Koreas to have the title ‘divided countries’ which is only one all over the world and made new genre called ‘Defector diaspora’.

Various types of studies in the genre have been conducted as lots of literatures are created but studies regarding ‘women’ are not significant.

Therefore, this study tells symbols of ‘crossing borders’ of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through 『RI-NA』 by Kang Yeongsook and 『JJIL-RE-KKOT』 by Jung Dosang. ‘Shoes’ and ‘Fog’ imply woman’s ‘crossing’ in 『RI-NA』 and 『JJIL-RE-KKOT』 respectively.

In 『JJIL-RE-KKOT』, the story tells about defector diaspora but the speaker, ‘I’ considers our awareness important objectively which is a strength of this. In 『RI-NA』, the story does not only tell direct appearing for reality and defector journey, but also maximizes literary imagination.

Now, the motif, Diaspora is not new not only in literature but also in general culture-art. However, we especially are exclusive for defector

diaspora. One of the reasons for this is distinct characteristic of Korean modern distort.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liberating period-Korean War- people and country division made different ideologies and we do not recognize the ideologies. This study tries to stop biased perspective of ‘North Korea’ or ‘defector’ during such process and rather created cilche for balance. For organized analysis of female character in defector diaspora novel, not only the above literatures but also other various literatures should be analyzed.

주제어: 탈북여성(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탈북 디아스포라(Diaspora Novel Defecting from North Korea), 국가(Nation), 국경(Border)

논문 접수일 2012. 11. 02.

논문 심사일 2012. 11. 23.

게재 확정일 2012. 12. 10.